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는 MZ세대의 생명존중 교육

김형희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인간 경험의 측면에서 MZ세대의 자살 이해
 - 1. 국내·외 자살의 실태
 - 2. MZ세대의 특징과 자살의 의미
- III. MZ세대의 자살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이해
 - 1.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의미
 - 2. 자살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이해
- IV. 기독교적 책임으로서의 생명존중 교육
 - 1.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구조
 - 2.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방향성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8.07>

• ABSTRACT •

Respect for life education for the MZ generation
that pursues Christian responsibility

Kim, Hyung Hee (Adjunct Prof.,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respect for life education that pursues Christian responsibility based on awareness of the crisis of increasing suicide and awareness of the problem in public education. This study applies the critical correlation method presented by David Tracy to the MZ generation, where the problem of suicide is becoming a serious issue. This understands the plurality of modern society and critically links human experience and the methods of the Christian tradition on an equal footing. Through thi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respect for life education was presented and the direction of respect for life education as a Christian responsibility was presented. The purpose of education presented through this is education to raise responsible human beings, and the content of education is human experience and interpretation of Christian scripture and tradition. The educational method is dialogue-centered education, teachers and learners are encounters between interpreters, and the environment is an area of life that humans can interpre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goes beyond the analysis of MZ generation suicide and presen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s an alternative at a preventive level.

Key words: suicide, MZ generation, critical correlation method, Christian responsibility, respect for life education

I. 들어가는 말

기술적 융합과 창조적 통합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세상에서도 생명의 소중함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테러, 전쟁, 낙태, 살인, 동물 학대, 인터넷 게임과 자극적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생명경시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¹⁾ 무엇보다 생명경시의 대표적인 척도로 간주하는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2009년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상태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젊은이의 자살은 심각한 문제인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MZ세대의 사망 원인 중에 1위는 자살이며 이것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상을 향해 무한한 열린 꿈을 꾸고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야 할 시기에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실상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며 기독교적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물론, 전체 자살률을 볼 때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에 감소하는 추세이며 실질적인 자살 사망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각 기관과 공교육의 자살 예방 교육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확인되는 자살시도자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공교육의 자살 예방 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자살시도자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생명존중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낸다. 기독교적 책임으로서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살 예방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측면이 있다. 예방적 관점에서 자살을 다루는

1) 신성현, “생명의 존엄성,”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서울: 생명문화·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6), 9-18.

연구의 경우 상담학은 청소년의 자살 현황과 요인 및 증상에 관심이 있으며, 종교교육은 생명과 정체성의 문제로 자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일반 교육과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에 최근까지 진행된 기독교교육의 연구는 공적인 측면으로 시야를 확장하며 기독교적 헌신과 소명으로서 책임 있는 삶의 방식을 강조한다. 이를테면 공적 담론과 기독교적 사회 운동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상호 보완적인 방식들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하지만 기독교적 책임의 관점에서 MZ세대의 자살을 연계시키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의 실천신학계가 지향하는 기독교적 책임의 흐름을 공유하면서도 MZ세대의 자살의 예방적 측면을 확장하여 생명존중 교육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MZ세대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현장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임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기독교적 가치를 항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방법론인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의 비판적 상관관계방법(critical correlation method)은 공통적인 인간 경험 및 언어와 기독교적 사실에 나타나는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이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과 기독교적 전통의 이분법이 아니라 상호 비판적인 연계를 통해서 공적 담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점이 있다. 부연하면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인간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기독교 전통과 텍스트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해석학적인 방법을 상호 비판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연계시키고 이론과 실천의 두 측면을 통합적으로 연결한다.³⁾ 이러한 방법론을 토대로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는 생명존중 교육을 MZ세대를 중

2) 박상길, “지속가능한 행복을 지향하는 공적 신앙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69-76.

3) David Tracy, *Plurality and Ambiguity*, 윤철호·박충일 역, 『다원성과 모호성』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7), 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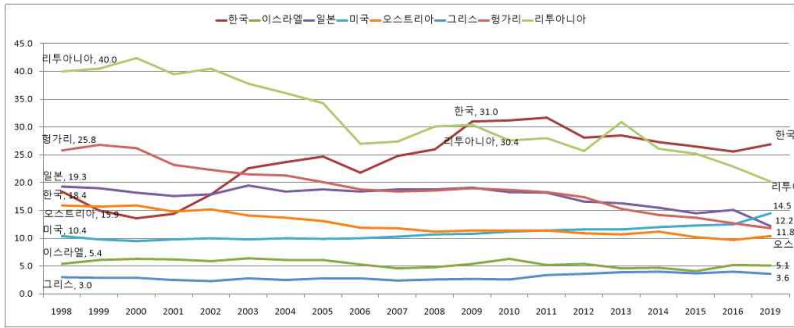
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간 경험의 측면에서 MZ세대의 자살 이해

1. 국내·외 자살의 실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29만 8,820명으로 1983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이다. 사망자를 분류해 보면 90.6% 이상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고, 약 9.4%는 자동차 사고, 화재, 추락, 자살, 익사 등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것은 하루에 대한민국의 인구 중에 평균 819명이 죽고 있음을 보여준다.⁴⁾ 그런데 자살행위와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는 더욱 분명하게 자살의 실태를 보여준다. 자살률은 5세 이상의 나이의 관점에서 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파악된다. 자살한 숫자로 표현되는 전체 자살률은 국내외의 비교는 물론 사망 원인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실태를 볼 수 있다. 우선 OECD 주요국가의 22년간(1998~2019) 전체 자살률 추이를 보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나라는 그리스와 이스라엘이다. 반면에 자살률이 현저히 높은 나라는 헝가리와 리투아니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의 자살률은 점차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은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자살률은 1998년에는 18.4명에서 2008년에 26.6명이 되었고 2009년에는 31.0명으로 1위가 되었다. 당시 2009년의 평균 자살률이 11.2명인 그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높은 상태이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보면 자살로 인해 사망한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보고되고 있다(그림 1 참조).⁵⁾

4) 남충현, 이규민, 『삶의 목적이 바뀌는 죽음 교양 수업』 (서울: 흥성사, 2020), 29.
5) 김형희, “공적 신앙과 기독교적 책임으로서의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David Tracy의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을 중심으로,” 『생명문화연구』 7(2018), 1-21.



〈그림 1〉 OECD 주요국가 22년간 자살률 추이(통계청, 1998~2019)⁶⁾

본 연구에는 2019년 이후의 통계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는 특별한 상황이므로 세계 각국의 자살률 추이의 통계 자료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 후속 연구로 남겨 놓는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가와 비교했을 때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망률 통계를 보면 자살이 운수 사고보다도 약 2.5배 높다고 보고된다. 무엇보다 자살 현상이 심각한 이유는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진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노년기에 높고 주요 연령대가 40~50대이지만, 젊은 층의 경우 사망 원인 1위는 사고나 질병이 아닌 자살이기 때문이다.⁷⁾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24세 이하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보고된 이후에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6년 한 해 동안 이들 그룹에서 자살한 숫자는 10만 명당 7.8명으로 하루에 최소한 1.5명

6) 위의 논문, 5-6; 통계청, “OECD 주요국가 자살률 추이,” <http://www.kostat.go.kr> [2024.2.29. 접속]. 대한민국의 2023년 자살 사망자 수는 13,770명으로 2022년보다 864명 증가한 상태이다. 이는 인구 10만명 당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의 숫자이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7) 최현석, 『인간의 모든 죽음』 (과주: 서해문집, 2020), 173.

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⁸⁾ 물론, 성별에 따른 자살률을 보면 남녀 간에 자살률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의 자살률보다 지속해서 높다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실제 자살이 여성 집단보다 남성 집단에서 더 심각한 건강 문제임을 제시한다.⁹⁾ 하지만 공통적인 현상은 MZ세대의 전체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차지하는 백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M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예방적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MZ세대의 특징과 자살의 의미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MZ세대는 1990년대 초중반생에 해당하는 밀레니엄세대(M세대)와 더불어 2010년대 초에 태어난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신조어이다.¹⁰⁾ 우리나라 M세대의 Z세대의 가치관과 행동 및 생활 양식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우선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며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외환 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 시대 속에서 청년 실업을 겪은 사람들이다. M세대는 TV 세대로 연예인이 동경의 대상이며 이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그룹이다. 반면에 Z세대는 X세대의 자녀로 생애주기 동안 호황기를 누리지 못하고 사춘기 무렵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며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경제관념이 명확하고 실용적이며 현세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가치관을 물려받아 부모 세대와 일부 유사함을 보인다. 학창 시절부터 주관적인 기준이 반영

8) 김형희, “한국 사회의 자살 현상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대학과선교』 47(2021), 163-188.

9) 박선희, 『청소년 자살행위 실태와 관련 요인』 (서울: 집문당, 2015), 31-32.

10) 유영권 외 15인,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교육』 (서울: 학지사, 2023), 26.

되는 수행평가 등을 거치면서 평가와 보상의 기준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룹이다.¹²⁾ 표 1을 보면, MZ세대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는 동시에 세부적으로는 다른 차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국내와 해외의 자살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MZ세대의 자살에 관한 공통적인 실태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MZ세대 중에서 특별히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주목한다. 이들 그룹을

〈표 1〉 한국 MZ세대의 특성 비교¹¹⁾

비교 기준	M세대(=Y세대)	Z세대
연령대	1980~2000년생(1981~1996년생)	1995~2005년생(1997~2005년생)
영향받는 대상	TV, 유명 연예인	YouTube, 인기 유튜버
커뮤니케이션	소셜 미디어(SNS)	영상통화
부모와의 관계	부모를 권위적이라고 생각함	부모를 친구처럼 생각함
관심사	자유	개인의 행복
라이프 스타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여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함, 자기 표현 욕구가 강함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디지털 원주민, 나의 만족이 최우선 고려 요소로 개인주의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신인류
소비 시 중시점	가격, 브랜드에 민감함	디자인과 포장, 사회적 가치
소비 패턴	실속: 평소에는 실속을 챙기다가 때때로 과감히 소비함	편리: 쉽게 충전해서 가볍게 사용함
직업의식	디지털 창업,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함	유연한 고용, 본업과 부업 멀티태스킹
키워드	자기계발, YOLO, 언택트, 가심비, 핫플레이스, 팽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트리밍, 급식체

11) 위의 책, 26-27.

12) 위의 책, 27.

선택한 이유는 2009년부터 대한민국 24세 이하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보고된 이후에 자살률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 초기의 그룹이 MZ세대에 포함될 수 있다.

MZ세대는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bio-psycho-social) 특성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이 행동이 생활 양식으로 발전한다. 우선 생물학적 특성은 신장과 체중의 증가, 체형의 변화와 자아 개념, 생리적 변화와 양면적 감정 그리고 삶의 양식과 건강 상태이다. 또한, 심리적 특성에서 고려할 요소는 인지·도덕적 특성, 정서적 특성 그리고 성역할 및 자아정체감 등이다. 그리고 사회적 특성에서는 가족과 친구 관계, 이성 교제, 진로와 직업 선택 등이 고려할 요소이다. 인생 과도기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여부에 따라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억제와 억압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와 연계될 때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¹³⁾ 이로 인해 MZ세대는 자살행위가 많이 증가하는데 이것이 더욱 심각한 이유는 자살의 결과에서 발생한다.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큰 영향과 충격을 미친다는 점이다. 친구나 가족의 자살은 깊은 슬픔과 질문을 불러오고 부모는 비극을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진다. 또한, 부모, 가족, 친구 등의 인생에 파멸의 씨를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시도의 위험성을 높이는 동시에 평생 그 여파를 지속시킨다.¹⁴⁾

그런데 이러한 자살행위(suicide behavior)는 자신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끊으려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자살 생각(suicide ideation), 자살계획(suicide plan), 자살시도(self-injurious behavior) 그리고 자살(complete

13) 위의 책, 17-25.

14) 임승희, “자살의 특징,”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서울: 생명문화·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6), 153-173, 525-539.

suicide)로 진행되는 연속체의 과정이다.¹⁵⁾ 자살행위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개인특성과 가족특성 그리고 환경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특성에는 생물학적·유전적·정신건강 요인 및 음주 특성이 포함된다. 일례로 세로토닌 부족 여부, 자살 관련 유전적 요인 여부, 정신건강 문제 여부, 폭음으로 인해 건강하지 않은 음주 행동은 자살행위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 다음으로 가족특성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가족의 정신건강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족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 때 자살행위 위험성이 증가한다. 그리고 환경 특성에는 대중매체, 학교생활, 사회적 지지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학교에 대한 애착·교우관계·학업성취 수준이 낮을 때, 대중매체를 통해서 유명인의 자살 보도를 접하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MZ세대는 자살행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된다.¹⁶⁾

자살의 예방적 측면을 위해 자살 관련 주요 이론을 살펴보면, 사회학과 심리학과 신경·유전학 측면의 연구이다. 우선, 사회학적 관점에서 에밀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2가지 사회적 방식의 강도에 따라 4가지 자살을 제시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와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을 기준으로 이기주의적 자살과 이타주의적 자살 그리고 숙명론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로 분류한 것이다.¹⁷⁾ 다음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와 칼 메닝거(Karl Menninger)는 내면화된 분노의 표현으로 혹은 타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역방향으로 발생하는 살인으로 제시한다. 그리

15) 조홍식,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서울: 생명문화·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6), 37-48.

16) 박선희, 『청소년 자살행위 실태와 관련 요인』, 26-27, 33-34.

17) 김형희, “한국 사회의 자살 현상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의 자살론을 중심으로,” 163-188.

고 신경·유전학적 관점을 살펴보면, 유전특성과 신경전달물질(neuro chemistry) 등의 생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자살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이를테면, 세로토닌(serotonin)의 감소와 충동 조절의 어려움의 연관성을 밝히며 이것이 자살의 충동적인 행위의 근거임을 제시한다.¹⁸⁾ 이상에서와 같이 MZ세대의 자살 예방을 위해 인간의 경험적 측면에서 그들의 생물학적·심리적·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을 인식하며 개인·가족·환경 특성과 자살 이론을 연구하는 것은 지속해서 필요한 과제이다.

III. MZ세대의 자살에 대한 기독교 전통의 이해

1. 자살에 대한 역사적 의미

구약성경이나 초기의 기독교 문헌에는 자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 ‘sui(자기 자신을)’와 ‘credo(죽이다)’의 합성어로 1642년에 필립스(Phillips)의 *New World of Worlds*에 처음 등장한다. 초기에는 대명사 ‘sui(자기)’ 대신에 ‘sus(돼지)’를 사용하여 자신을 살해하는 야만적인 돼지의 모습으로 인간을 묘사하였으나 1651년에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자신을 살해한다(suicidium)’라는 의미로 표현된 것이다.¹⁹⁾ 역사적인 관점을 추적하면 플라톤(Plato)은 자살에 반대하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자살이 비겁한 행동인 동시에 국가의 정책에 반대되는 것으로 규탄한다. 하지만, 에피쿠리안학파(epicureans)와 스토아학파(stoics)는 자살을 인간의 자유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본다.

18) A. L. Berman., D. A. Jobes and M. M. Silverman,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nd ed)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5-22.

19) Marzio Barbagli, *Farewell to the World*, 박우정 역, 『자살의 사회학』 (서울: 글항아리, 2017), 11-13.

이후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르러 자살의 의미는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순교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특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확립되면서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보편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후 중세 시대의 스콜라 사상(scholasticism)은 기독교 사상과 융합하면서 자살을 죄악으로 인지하고 자살한 사람의 재산을 교회나 국가에서 몰수한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Summa Theologica*에서 자살을 반대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가톨릭교회의 자살 이해의 바탕을 이룬다.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자살은 증가하지만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는 자살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감행된 살인으로 보았으며, 존 칼빈(John Calvin)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생사여탈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성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18세기에 장 루소(Jean-Baptiste Rousseau)와 체사레 디베카리아(Cesare Bonesana Marchese di Beccaria) 등을 통해 자살자에게 부가한 가혹한 행동을 경험적 관점과 비판적 이성의 측면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²⁰⁾ 또한, 1800년에 이르러 엄격한 종교적 규제는 자살 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심리학자들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삶의 본능(eros)과 죽음의 본능(thanatos)의 관계를 설정하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과 갈등 속에서 원초적 자아(id)의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자살행위라고 해석한다. 일례로, 1732년에 영국인 스미스(Smith) 부부가 극한의 가난 속에서 어린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은 자살 사건은 현대적인 시각에 변화를 제공한다. 최근의 자살에 대한 관점은 심리적·사회적·문화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자살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시도하는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²¹⁾

20) 위의 책, 12-40.

2. 자살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이해

기독교 전통의 입장에서 자살의 의미를 분석할 때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자살에 대한 성서적 의미를 살펴보면, 성서는 자살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성경에 나오는 자살 이야기는 7가지로서 구약에 6개가 등장하고 신약에 1개가 나온다. 부연하면, 구약 성경의 아비멜렉은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아 중상을 입은 채 소문을 두려워하여 소년에게 자신을 찌르게 하여 죽는다(사사기 5:4).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잃은 채 블레셋의 비참한 포로로 살던 중에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다(사사기 16:29-30).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포로가 되지 않고 칼에 엎드려져 자살을 선택한다(사무엘상 31:3-5, 역대상 10:45). 사울의 병기를 든 소년은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칼에 엎드려져 자살한다(사무엘상 31:5).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의 신임을 잃은 후에 스스로 고향으로 가서 목매어 죽는다(사무엘상 17:23). 북이스라엘의 시므리 왕은 수도가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는다(열왕기상 16:18).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린 죄책감 때문에 은 30을 성소에 던지고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다(마태복음 27:3-10).²¹⁾ 이들의 죽음을 분석해보면, 전쟁 중에 불명예를 당하거나 신성모독의 위협이 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혹은 책임완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행했다는 점이다.²²⁾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며 오직 인간의 생명이 존엄함을 강조한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해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죽으면 끝이라는 의

21) 위의 책, 41-50.

22) 김충렬, 『기독교인이 왜 자살하는가?』 (서울: 한국상담치료연구소, 2009), 34-35.

23) 위의 책, 36-40.

미가 주류이다(창세기 3:19, 시편 39:5-6, 88:3-7, 욥기 7:21). 또한, 죽음을 통해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비주류의 관점이 있다(시편 36:9, 사무엘상 2:6, 신명기 32:39, 이사야 25:8, 26:19). 반면에 신약의 주류적인 입장은 죽음은 없다는 관점이다(누가복음 20:38, 20:27-40, 로마서 14:7-9).²⁴⁾ 성경의 구절들에서 발견되는 사실은 어떤 칠후 같은 암흑과 고난 속에 있을 지라도 모든 생명이 창조주의 주권임을 드러내고 생명의 소중함을 제시한다는 점이다(사무엘상 2:6, 욥기 3:11, 시편 73:14).

다음으로 자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 교회의 신앙고백서는 자살이 개인적 혹은 사회적으로 죽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보며, 3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우선, 자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의 영향력으로 육체의 부패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타난 잘못과 허물이다(에베소서 2:1-3). 또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이다(사도행전 1:16-20). 그리고 자살은 낙심의 결과로 자신을 죽인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처럼 개혁주의 교리 입장에서는 자살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 행위로 간주한다.²⁵⁾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 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자기 목숨을 고의로 끊는 죄악이라는 관점이다.²⁶⁾ 물론, 한 사람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순종과 대비시키고 ‘대표성과 동일시의 원리’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제시한다.²⁷⁾ 하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은 여전히 죄악으로 정의되고 있다.

24) 남충현, 이규민, 『삶의 목적이 바뀌는 죽음 교양 수업』, 30-46.

25) 최병섭, 『개혁 교회 신앙 고백서』 (서울: 신성, 1997), 117.

26) 김효성, 『기독교윤리』 (서울: 옛신앙출판, 2002), 69.

27) 남충현, 이규민, 『삶의 목적이 바뀌는 죽음 교양 수업』, 47.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자살은 수용할 수 없는 생명 창조에 반하는 악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살 예방을 위하여 저주와 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생명존중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는 데 그 초점이 모이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살을 죄악으로 도외시하기보다는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우는 교육적 접근이 요청된다.

IV. 기독교적 책임으로서의 생명존중 교육

1.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구조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의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을 토대로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이론적 틀이 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적 가치가 중심이 된 생명존중 교육이다. 이때, 생명존중 교육이 일차적으로는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MZ세대의 시기에 갑자기 증가하는 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자살계획-자살 시도-자살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 생명존중 교육은 자살의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자살 생각을 식별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기 중재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자살 가족에게 미칠 수 있는 후유증과 자살로 인한 의료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다.²⁸⁾ 또한, 생명존중 교육은 교육철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욕구가 분출되는 타락의 시대로 묘사되는데,²⁹⁾ 이때 필요한 교육의 목표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며,³⁰⁾ 자기 자신에게 정통하도록 돕는 것이다.³¹⁾ 기독교적 책임의 가치가 중심이 된 생명존중 교육은

28) 박선희, 『청소년 자살행위 실태와 관련 요인』, 3.

29) George R. Knight, *Issue and Alternatives in Educational Philosophy*, 김병길 역, 『교육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1), 8.

30) Nel Noddings, *Education and Democracy*, 심성보 역,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서울: 살림터, 2016), 221-222.

MZ세대에게 효과적인 자살 중재와 더불어 본질적인 자기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형이상학적·초월적 성찰을 수행하는 생명존중 교육이다. 현대사회의 공교육의 문제는 충실한 정신의 부재에 기인하며 이것이 무관심, 의미 상실(mindlessness)³²⁾로, ‘위대한 변혁을 잃어버린 사소함(innert)’³³⁾으로, ‘교육의 종말’³⁴⁾로 표현된다. 따라서 교육의 현장에서 궁극적으로 실재하고 가치 있는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와 같은 형이상학적·초월적 질문과 성찰은 매우 중요하다.³⁵⁾ 실상 자기가 분열되고 깨지는 현상이 자살이기에 형이상학적·초월적 질문과 성찰을 통해 MZ세대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 형성 및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근본적인 행복과 연결되는 동시에 인생관과 세계관은 물론 기독교교육과 교육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상호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는 생명존중 교육이다.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의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의 강점은 인간 경험의 현상학적 접근과 기독교 전통(텍스트)를 연결하는 것을 통해 상호질문과 상호대답의 장(場)을 형성한다는 점이다.³⁶⁾ 공교육의 현장은 절벽 사회와 피로 사회의 고단함 속에 있는 MZ세대를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이 투영된

31) David W. Orr,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이한음 역, 『학교를 잃은 사회, 사회를 잇은 교육』 (서울: 현실문화, 2009), 28-30.

32) George R. Knight, *Issue and Alternatives in Educational Philosophy*, 8.

33) Alfred N. Whitehead,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유재덕 역, 『교육의 목적』 (서울: 처음, 2003), 13-15.

34) Nel Postman, *The End of Education*, 차동춘 역, 『교육의 종말』 (서울: 문예출판사, 2011), 13.

35) Roland W. Henke, ed. *Zugänge zur Philosophie*, 조병희 역, 『철학 입문-나와 세계에 대한 놀라운 질문들』 (서울: 북비, 2013), 5-10.

36) 김현숙,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사회, 2004), 184.

냉소적인 숙명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특별한 꿈을 다르게 꿈꿀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교육을 지향하며,³⁷⁾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인류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공감하는 동시에 부활의 소망으로 치유하고 변혁하는 기독교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적 역할이 필요하다.³⁸⁾ 이때 공교육의 현장은 인간의 경험과 기독교 전통간의 상호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는 장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열린다. 따라서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목표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도록 이해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간 경험으로 재형성되는 기독교적 생명존중 교육이다. 인간의 경험은 깊이 들어갈수록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측면이 있다.³⁹⁾ 인간의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적 실천과 연결되며 하나님의 프락시스와 인간의 파트너십에 충실한 신학은 물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프락시스와 연결된다.⁴⁰⁾ 있는 그대로 경험을 고찰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현상학적 방법⁴¹⁾으로 성찰하면 자살은 도움을 얻기 위한 절규이다. 기독교적 생명존중 교육은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울 수 있다. 우선, MZ세대의 자살은 내재화된 공격성의 발현과 부정적 감정의 축적으로부터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기에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37) Paulo Freire, *Pedagogy of Freedom: Ethics, Democracy, and Civic Courage*, 사람과사람 역, 『자유의 교육학: 민주주의와 윤리 그리고 시민적 용기』 (서울: 이침이슬, 2007), 12.

38)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동연, 2020), 17.

39) James R. Estep Jr., J. Michael and Gregg R. Allison.,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Tennessee: B&H Publishing Group, 2008), 48.

40) James W. Fowler, *Faithful Change: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사미자 역, 『신앙의 변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290-291.

41) Mary E. Moore, *Teaching from the Heart: Theology and Educational Method*, 장대현 역,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139-140.

또한, MZ세대의 자살은 잘못된 인지적 구조와 핵심 신념으로부터 발생한 우울한 감정과 충동적 행동에 기인하므로 기독교적인 생명존중 활동으로 합리적 사고와 정서를 찾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MZ세대의 자살은 슬픔을 충분히 표출하지 못하고 우울한 기분이 축적되어 자살 충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적 생명존중 교육은 슬픔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 텍스트로 재형성되는 인간 경험의 생명존중 교육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자살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 자살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공감적인 이해와 희망을 제공하려는 고무적인 시도가 있다. 기독교 전통(텍스트)의 관점은 MZ세대의 경험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간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올바른 신앙의 가르침을 시행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기독교의 삶의 열정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살 문제를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방향성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는 생명존중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교육 목적은 책임 있는 인간을 양육하는 교육이다.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은 인간의 경험과 기독교 전통의 비관적 상관관계를 연결하는 것을 통해서 책임 있는 인간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민(citizen)과 제자(disciple)의 정체성으로 구현되며, 시민직(citizenship)과 제자직

(discipleship)의 이중적 책임으로 살아가게 된다.⁴²⁾ 헌신 된 그리스도의 제자인 동시에 거룩하고 건강한 세상 속의 시민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지기로서의 책임을 지향한다.

둘째, 교육 내용은 인간의 경험과 기독교 성서와 전통에 대한 해석이다. 교육의 현장에서 인간의 경험을 해석하고 성서와 전통을 해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해석학적 관점은 성서와 오늘의 삶을 연결하는 지평융합인 동시에 기독교적 책임을 실천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와 소명적 질문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의 창조세계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삶에 헌신하는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생명의 소중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논하는 창조적 대화의 이슈로 '세월호 사건'을 제안할 수 있다. 역사적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의 공감해 달라는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호소를 중심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지기로서의 책임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질문과 대화로 진행되는 인격적인 대화는 기독교적인 소명, 신앙 성장, 복음 증거의 임무까지 확장될 수 있다.

셋째, 교육 방법은 대화 중심의 교육이다.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교수 학습 과정(teaching-learning process)에서 핵심 키워드는 대화이다. 상호질문과 상호 대답을 통해서 기독교적 책임이 실현되는 교육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이 공유적 프락시스(shared praxis)의 다섯 가지 무브먼트(movement)의 실례로 보여준 성경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누가복음 24:13-34)는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⁴³⁾ 대화식 교육을 통해 성서와 기독교 전통 그리고

42) Mary C. Boys,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1-12.

43)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327-340.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 새로운 해석적 계기가 제공될 수 있다.

넷째, 교사와 학습자는 해석자들 간의 만남이다.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실천할 때 교사와 학습자는 단순한 안내자와 순례자를 넘어 해석자들 간의 만남으로 제시될 수 있다.⁴⁴⁾ 교사와 학습자의 만남은 일상과 같은 해석의 과정으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MZ세대들은 삶의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축적되어 자살의 충동으로 이어진다. 이때,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찰흙형상 만들기를 통해 자신을 투영해 보고 교사와 학습자 간에 대화와 해석을 통해서 대처방식을 점검할 수 있다. 생명존중 교육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관계는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는 상호 연결된 해석자이다.

다섯째, 환경과 평가의 측면이다.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할 때 환경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다. 실상 기독교적 책임의 요소는 교회 안팎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은 관계를 맺으며 해석되는 기독교교육의 현장이다. 인간의 경험과 성서적 삶을 연계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해석하면서 기독교적인 책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기독교교육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교육은 물론이고 MZ세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공적 담론과 기독교적 사회 운동과 더불어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책임의 영역을 큰 그림을 이해하고 MZ세대가 생명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며 책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석된 삶의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측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학습자 자신의 평가, 또래 공동체의 형성을

44) 김현숙,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163-168.

통한 평가, 그리고 책임 있는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교육 목표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풍요로움이 절정으로 치닫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죽음을 향한 충동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려는 MZ세대들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생명경시 현상의 분위기가 만연된 사회에 제동을 걸고 생명의 소중함을 복원하는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자살에 대한 위기 인식과 공교육의 한계를 토대로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는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공적 담론에 강점이 있는 트레이시의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을 통해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인간의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과 기독교의 전통(텍스트)에 대한 역사적·해석학적 방법을 상호 비판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연계하였다. 이러한 비판적 상관관계를 통해 MZ세대를 위한 기독교적 책임으로서 생명존중 교육의 구조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이론적 틀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을 둔 생명존중 교육, 형이상학적·초월적 성찰을 수행하는 생명존중 교육, 상호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지는 생명존중 교육, 인간 경험으로 재형성되는 기독교적 생명존중 교육, 기독교 텍스트로 재형성되는 인간 경험의 생명존중 교육이다. 또한,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의 방향성으로 제시된 교육 목적은 책임 있는 인간을 양육하는 교육이며, 교육 내용은 인간의 경험과 기독교 성서와 전통에 대한 해석이다. 교육 방법은 대화 중심의 교육이며, 교사와 학습자는 해석자들 간의 만남이며, 환경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다.

생명존중 교육은 MZ세대들에게 생명의 소중한 기독교적 가치를 경험

시키는 것이 본질적 교육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단순히 기능적인 인간을 답지하는 교육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소명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담론으로 제기되고 기독교적 사회 윤리 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 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은 물론 공공의 영역과 우주 만물의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기독교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발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MZ세대의 자살행위의 연속적인 과정과 다양한 요인에 대해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기독교적 책임의 영역에서 MZ세대의 특징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공통된 인간 경험 및 기독교 텍스트의 폭넓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MZ세대 자살에 대한 분석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나이와 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례와 방법을 통해 생명존중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후속 연구의 지점이다.

참고문헌

- 김도진 외 9인. 『생명존중교육을 위한 자살예방론』 서울: 창지사, 2016.
- 김충렬. 『기독교인이 왜 자살하는가?』 서울: 한국상담치료연구소, 2009.
- 김현숙. 『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김형희. “한국 사회의 자살 현상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기독교교육: 뒤르케임(Émile Durkheim)의 자살론을 중심으로.” 『대학과선교』 47(2021), 163-188.
- _____. “공적 신앙과 기독교적 책임으로서의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David Tracy의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을 중심으로.” 『생명문화연구』 7(2018), 1-21.
- 김효성. 『기독교윤리』 서울: 옛 신앙출판사, 2002.
- 남충현, 이규민. 『삶의 목적이 바뀌는 죽음 교양 수업』 서울: 홍성사, 2020.
- 박상길. “지속가능한 행복을 지향하는 공적 신앙 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박선희. 『청소년 자살행위 실태와 관련 요인』 서울: 집문당, 2015.
- 신성현. “생명의 존엄성”,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서울: 생명문화·서울시 자살예방센터, 2016.
- 유영권 외 15인. 『MZ세대를 위한 생명존중교육』 서울: 학지사, 2023.
- 임승희. “청소년 자살의 특징”,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서울: 생명문화·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6.
- 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서울: 동연, 2020.
- 조홍식.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서울: 생명문화·서울시자살예방센터, 2016.
- 최병섭. 『개혁 교회 신앙 고백서』 서울: 신성, 1997.
- 통계청. “OECD 주요국가 자살률 추이.” <http://www.kostat.go.kr> [2024.2.29. 접속].
- Barbagli, Marzio. Farewell to the World. 박우정 역. 『자살의 사회학』 서울: 글항아리, 2017.
- Berman A. L., Jobes D. A. and Silverman M. M.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2nd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

- Boys, Mary C. Education for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Estep Jr, James R., Anthon, Michael J. and Allison, Gregg R. A Theology for Christian Education. Tennessee: B&H Publishing Group, 2008.
- Fee, Gordon D. Paul.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Mass: Hendricks on Publishers, 1996.
- Fowler, James W. Faithful Change: The Personal and Public Challenges of Postmodern Life. 사미자 역. 『신앙의 변화』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6.
- Freire, Paulo. Pedagogy of Freedom: Ethics, Democracy, and Civic Courage. 사람대사람 역. 『자유의 교육학: 민주주의와 윤리 그리고 시민적 용기』 서울: 아침이슬, 2007.
- Groome, 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0.
- Henke, Roland W. ed. Zugänge zur Philosophie. 조병희 역. 『철학 입문. 나와 세계에 대한 놀라운 질문들』 서울: 북비, 2013.
- Knight, R. George. Issue and Alternatives in Educational Philosophy. 『교육철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1.
- Moore, Mary E. Teaching from the Heart: Theology and Educational Method. 장대현 역.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3.
- Noddings, Nel. Happiness and Edu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Noddings, Nel. Education and Democracy. 심성보 역. 『21세기 교육과 민주주의』 서울: 살림터, 2016.
- Orr, David W. Earth in Mind: On Education, Environment, and the Human Prospect. 이한음 역. 『학교를 잃은 사회, 사회를 잊은 교육』 서울: 현실문화, 2009.
- Postman, Neil. The End of Education. 차동춘 역. 『교육의 종말』 서울: 문예출판사, 2011.
- Tracy, David. Bessed Rage for Order: The New Pluralism in 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Tracy, David. Plurality and Ambiguity. 윤철호·박충일 역. 『다원성과 모호성』 서울: 크리스천해럴드, 2007.

Whitehead, Alfred N. *The Aims of Education and Other Essays*. 유재덕 역. 『교육의 목적』 서울: 처음, 2003.

논문투고일: 2024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4월 15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 증가의 위기 인식과 공교육적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책임을 지향하는 생명존중 교육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MZ세대를 대상으로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가 제시한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을 적용한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다원성을 이해하고 인간 경험과 기독교 전통의 방법을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비판적으로 연계시킨다. 이를 통해 생명존중 교육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기독교적 책임으로서 생명존중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된 교육 목적은 책임있는 인간을 양육하는 교육이며, 교육 내용은 인간의 경험과 기독교 성서와 전통에 대한 해석이다. 교육 방법은 대화 중심의 교육이며, 교사와 학습자는 해석자들 간의 만남이며, 환경은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다. 본 연구는 MZ세대 자살에 대한 분석을 넘어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제어: 자살, MZ세대, 비판적 상관관계 방법, 기독교적 책임, 생명존중 교육
